

Ⅲ. 주요 경제 현안

1. 水害로 인한 經濟危機 深化 可能性 診斷

- (경제 부문별 영향 추정) 집중 호우로 인한 재산 손실과 경제 활동의 위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경제 성장률 0.2~0.4%p 하락 ▷실업률 일시적으로 0.2~0.3%p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률 두자리수에 육박 ▷거시경제가 악화될 경우 금리 상승 ▷수출 차질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원화 약세화 초래
- (경제 성장률 -5%의 의미) 사상 최저치인 -5% 성장에 따라 국내총생산은 276조 원(90년 불변가격)을 기록할 전망. 이는 96년 국내총생산과 동일한 규모임
-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유효수요 제고의 필요성) 수해로 인한 GDP 감소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함. 수해 발생 이전 수준으로 GDP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약 1조 원의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

□ 經濟 部門別 影響 推定¹⁾

○ 실물 경제

- (경제성장, 실업) 경제 성장률 0.2~0.4%p 하락, 실업 일시적으로 0.2~0.3%p 상승
 - 경제 성장률은 농업 생산의 차질, 제조업의 조업 차질, 수출 선적의 지연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연간 0.2~0.4%p 내외가 하락하여 연간 -4.9~-5.1%(당초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4.7%)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수해 복구를 위한 대대적인 공공 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실업도 일시적으로는 0.2~0.3%p 상승해 4,000~6,000명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현대경제연구원 하반기 평균 실업률 전망치인 8.5%보다 0.1%p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농림축산업) 전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 연간 0.1~0.2%p 하락
 - 농경지 침수 및 유실로 인한 생산 차질은 평년의 약 3% 내외로 추정됨
 - 축산물의 생산도 약 5%내외의 감소 요인 발생. 현재와 같은 호우가 1주일 이상

1) 경제부문별 영향 추정은 8월 10일 현재 서울·경기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집중 호우로 인한 재산 손실과 경제 활동의 위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부문별로 추정한 것임.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기상 상태가 향후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국민경제에 주는 피해는 아래의 추정치보다 확대될 것임

지속된다면 피해 규모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제조업)** 전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 연간 0.1~0.2%p 하락
 -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경기 지역의 호우 피해가 심하여 8월 한달간 가동률 하락 규모는 전체의 5~10%p에 달함
 - 그 결과 연간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약 0.5~0.9% 감소로 나타남

- **(수출 및 경상수지)** 8월 한달간 수출 차질 규모는 5~7억 달러
 - 서울·경기 지역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3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 제조업체의 생산 감소는 수출에도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임
 - 경기도 지역의 수출이 10%, 여타 지역의 수출은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8월 한달간 수출 차질 규모는 5~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수출 차질은 하반기 경상수지도 같은 규모로 축소시킬 것임

- **(지역별 총생산)** 경기 지역 0.5%~0.6%p, 서울 지역 0.4%p 성장률 감소
 - 지역별 총생산(GRP:Gross Regional Products)의 차질은 경기 지역에서 0.5%~0.6%p의 성장 감소효과가 예상되어 전국에서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임
 - 서울 지역은 0.4%p, 그밖의 지역은 0.3%p 내외의 성장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임

○ 가격지표 및 금융지표

-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두자리수에 육박
 - 수해 피해로 하반기중 농산물 가격이 상반기 대비 약 10%(產地가격 기준) 이상 상승할 것이며, 이 경우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최고 2%p(전년 동기 대비)에 달할 것임
 - 그 결과 연간 소비자물가는 당초 예상치(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7.8%)보다 약 1.5~2%p 추가 상승하여 상승률은 두자리수에 육박할 전망이다
 - 더구나 생활물가의 상승폭은 더욱 확대되어 전년 동기 대비 현재 10%~11%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 **(금리)**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될 경우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수해 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성장률 하락,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될 경우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그러나 현재 지표금리가 5대 그룹 회사채를 중심으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표 금리에는 커다란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 수해 복구를 위한 정부 지출이 채권 발행이 아닌 예비비 지출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직접적인 驅逐效果(crowding-out effect)는 기대되지 않음
- (환율) 수출 차질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원貨 약세 요인으로 등장
 - 외환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복구 작업 지연, 호우 지속 등으로 수출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8월말부터 원貨 약세 요인으로 등장
 - 더구나 중국의 양자강 홍수 사태와 홍콩의 환투기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향후 1주일내 현재 1,300~1,350원보다 상승한 달러당 1,400원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주가) 수해 복구 지연, 수출 차질 심화시 20포인트 하락 가능성
 - 현재 300~350선으로 형성된 주가가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수해로 인한 직접적인 추가 하락은 기대되지 않음
 - 그러나 수해 복구가 지연되고 수출 차질이 심화되는 경우 8월 중 20포인트 정도의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수해 전후 전망치 비교 >

(단위: 억 달러, %)

	상반기	당초 전망치		수해 이후 전망치	
		하반기	연간	하반기	연간
국내총생산	-4.8	-4.6	-4.7	-5.1~-5.4	-4.9~-5.1
경상수지	224	139	363	132~134	356~358
수출입차	200	171	371	164~166	364~368
수출(통관기준)	676	665	1,341	658~660	1,334~1,336
(증가율, %)	(3.6)	(-6.2)	(-1.5)	(-7.2~-6.9)	(-2.1~-1.9)
수입(통관기준)	476	494	970	494	970
(증가율, %)	(-36.1)	(-33.7)	(-33.0)	(-33.7)	(-33.0)
소비자물가(평균)	8.6	7.1	7.8	10.8~11.8	9.3~9.8
실업률(평균)	6.3	8.5	7.4	8.6	7.5

□ 經濟 成長率 -5%의 意味

- (사상 최저의 성장률) -5% 내외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됨에 따라 1998년은 사상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한 해가 될 것임. 또한 이는 1980년에 경제성장률이 -2.7% 이

후 사상 두 번째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록될 것임.

- (경제 수준의 2년 후퇴) 성장률이 -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총생산은 276조 원(90년 불변가격)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1996년의 국내총생산과 동일한 규모임
- (내년 경제 성장률 상승 전망) 전년과 비교하여 산출하는 경제성장률의 특성상 올해의 부진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수치상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財政支出 擴大를 통한 有效需要 提高의 必要性

- (통화증발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 수해로 인한 GDP 감소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함
 - 지금과 같은 신용경색속에서는, 재정지출의 확대가 병행되지 않은 통화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둘수 없으므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야 함
 - 또 국채를 민간에 인수시키는 형태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국채의 소화 여부도 의문시되며, 국채 발행과정에서 회사채 수익률을 높여 민간의 자본 조달 여건을 악화시키는 등 구축효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국채 발행 형태가 아닌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화증발과 결합시키는 정책 조합(Policy Mix)이 요청됨
- (재정지출 1조 원 정도 확대해야) 본 연구원의 모델에 의할 경우, 수해발생 이전 수준으로 GDP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약 1조 원 정도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함
 - 현재 책정된 4천억 원 정도로는 크게 부족하며, 책정된 예비비 약 1조 2천억 원의 거의 대부분을 수해대책에 투입하여야 함
 - 예비비를 전적으로 수해대책에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수해가 지속되어 피해규모가 확산될 경우, 부분적으로 통화증발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통화증발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의 경우, 수해로 인해 10%대로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이 10%대 이상으로 상승하는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을 것임

(동향분석팀 ckche@hri.co.kr ☎724-4031, IMF연구팀 hrjo@hri.co.kr ☎724-4056)

